

NET WORK



협회·회원사

(사)한국포장협회 2005 송년회 개최
SKC(주) 美, 공장, 코닥에 장기공급 계약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신기능 재료전 참관단 모집

정책기관

산업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05 개최
산자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표시 국가표준제정
식약청 기구 등 살균소독제 개정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개관

유관단체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포장기술사회 10대 우수포장 선정
국립식물검역소 대중국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표지 의무화

업계동정

(주)지앤씨코리아 프라스틱생분해 생산시설 증설
(주)테스테크 LCD PVA필름 국산화 성공
한일제관(주) 사각 육가공용 캔 생산시작



(사)한국포장협회
2005년도 송년회 개최
 회원사 공동번영 통해 포장산업 발전 다져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구랍 21일 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70여명의 협회 회원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선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장경제 상황 속에서도 협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협회는 회원사의 물심양면적 지원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포장회관’을

구입하고, 포장산업 발전의 근간으로 작용할 포장시험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포장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인 ‘포장기술관리사’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포장산업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코리아팩 전시회도 꾸준히 발전시켜 일본의 도쿄팩 전시회에 버금가는 국제 전시로 발돋움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포장협회 분과위원장 및 업종별 대표자들이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분과별 애로사항과 회원사 결집을 위한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신동호 포장기계 분과장은 “포장기계 분과는 불공정한 거래를 지양하고 포장인쇄 기술 및 품질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하면서 “회원사간



▲ (사)한국포장협회 2005 송년회 개최

의 거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박 분과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한 현석원 동일알루미늄(주) 대표이사는 “알루미늄박 분과는 사상유래없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지난 한해 회원사 알루미늄박 제품을 이용해 주신 연포장업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심영인 OPP 분과위원장은 “OPP 필름 업체는 저가 동남아산 필름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2년 내에 연포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기사회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가가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전 업체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영식 잉크분과 위원장은 “잉크분과는 고품질 잉크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잉크분과위원회 공동 컬러북을 제작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서순석 제판분과위원장은 “제판업체는 후발 영세기업들이 가격 덤핑으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협회 제판분과는 단합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PET 필름 분과위원장인 이태화 SKC(주) 본부장은 “PET 원료가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PET 필름 업체는 상당량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유로 달러 등의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하면서 “다행히 평판디스플레이업체가 발전함에 따라 PET 필름 수요가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덧붙여 “PET 필름 역시 중국산이 소량 유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가격 변수 등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가절감과 품질혁신에 노력하고

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으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포장업체를 대표한 김선창 회장은 “포장협회 회원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포장업체가 발전할 때 전 회원사와 포장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동거동락의 마음으로 전 회원사들이 협회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표출하는 등 단합된 모습으로 포장업체를 이끌자”고 독려했다.

이날 송년회는 참석자 모두가 협회 발전 사항을 논의하고 포장업체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SKC(주)
美공장, 코닥에 장기공급 계약
의료용 폴리에스터 필름

SKC(주)(대표이사 박장석)가 미국에 세운 조지아주 폴리에스터 필름 공장이 코닥사와 제품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SKC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공장은 최근 코닥사와 의료용 폴리에스터 필름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

SKC 관계자는 “계약관계상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고부가 폴리에스터 필름의 최대 수요자인 코닥과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코닥에 장기 공급기로 한 제품은 범용 폴리에스터 필름이 아닌 의료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기능성 필름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회사 관계자

는 밝혔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자기기록, 포장, 그래픽 이미지, 전기전자 및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1999년 2억5천만달러를 들여 준공한 조지아주 공장은 2000년부터 양산을 시작, 해마다 매출을 20%씩 늘리며 성장해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1억5천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 세계 4위인 SKC는 1978년 독자기술로 폴리에스터 필름을 개발한데 이어 LCD TV에 사용되는 광확산필름(LDF)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신기능성재료전 2006참관단 모집
 연포장 컨버팅 기술 응용 등 선보여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가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빅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동시 개최되는 신기능성재료전 2006(Neo Functional Material)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신기능성재료전에는 연포장의 컨버팅 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분야와 전자재료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기술, 재료(각종필름을 포함한 소재,

일정표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2/21 (화)	인 천 동 경	KE701 전용차량	07:00 09:20 11:30	인천 공항 3층 G 카운터 집결(집결지 추후통보) 인천 출발 동경 나리타 공항 도착후 가이드 미팅 중식후 전시장으로 이동 -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GRAND PALACE HOTEL(03-264-1111)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2일 2/22 (수)	동 경 아타미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후 전시장으로 이동 - 전시회 참관 (빅사이트) 아타미로 이동(3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온천욕 HOTEL : NEW AKAO HOTEL (0557-82-5151)	조식: 호텔식 중식: X 석식: 호텔식
제3일 2/23 (목)	아타미 하꼬네 동 경 인 천	전용차량 KE002	전일 17:00 19:40	호텔 조식후 하꼬네로 이동(1시간소요) 오와꾸타니(후지산 관망), 모토히꼬네삼나무길 역후지산명소— 하꼬네신사 관광후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3시간 소요) 나리타 공항 출발 인천 공항 도착후 해산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잉크, 점착제, 접착제, 코팅제 등), 설비 등이 출품된다.

또한 동시 개최되는 나노테크노로지 전시회는 국가나 기업, 대학의 최대 관심사인 나노테크놀로지의 재료와 응용제품, 초미세가공기술과 제품 및 평가·측정기기가 출품되며, Nano-Bio Expo 전시회는 Micro-chemicals, Bio-materials, 해석·시스템 및 Tools, 재생의료가 출품된다.

ASTECC는 Advanced Surface Technology Exhibition & Conference의 약어로서 국제 선단 표면기술전으로 표면경화·가공 분야를 지탱하고 있는 재료의 기능성 향상과 함께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인쇄 등의 모든 업계 종사자들에게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호 소장은 이번 참관은 관련 전자재료 사업과 이 분야에 새롭게 참입하려는 업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가료는 1인당 98만원이며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한국포장기술연구소로 하면 된다.

전화: (02)2026-8166

팩스: (02)2026-8169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전자재료 2005 세미나 개최
 전자재료 및 전자 프로세스 진출 발판 마련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전자재료 Technology 2003, 2004 in Seoul 세미나에 이어 '전자재료 Technology in Seoul 2005' 세미나를 구랍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 한국포장기술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전자재료 Technology in Seoul 세미나는 일본의 電氣電子材料研究會(會長 杉本 榮一)가 매년 Osaka, Tokyo 세미나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 세미나를 년중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 세미나는 특히 일본의 경우 포장재 메이커가 전자재료분야에 진출하여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국내 포장재 업체가 최대 수익과 급속 팽창하는 전자재료 및 전자 프로세스 재료분야 진출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 일본의 포장컨버터 메이커의 전기전자재료 시장의 전개 상황 △ 전자재료전자 프로세스 재료 제조설비, 제조기술의 개발동향 △ 전자재료를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의 동향 △ 전자재료용 도공액 배송시스템의 정밀도공 설비의 응용과 전개 등의 강의를 있었다.

는 의무적용하고 축산물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장과 운반·판매업 등은 희망업체에 한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HACCP가 적용되는 업체는 도축장 1백36곳과 가공업체 95곳 등 4백21곳으로, 제주는 도축장 2곳 등 3곳이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HACCP를 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브랜드사업과 친환경직불제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가축사육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도입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2007년 젖소·한우 사육농가, 2008년 양계농가 등에 대해서도 HACCP 제도가 적용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게 된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축장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05 개최
세계베스트디자인전, 컨퍼런스 마련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 2005)가 구랍 1일부터 열흘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렸다.

개막식날 열린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는 디자인산업발전전략 보고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수 산업디자인(GD) 상품과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 대한 시상식 등이 거행됐다.

디자인코리아 2005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ICSID),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 등 세계적인 디자인관련 국제기구들이 인증하는 권위있는 국제행사이다.

전시회개막행사에도 이회범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 김용갑 국회 산자위원장과 이병석, 김태년 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구자홍 디자인코리아조직

정책기관

위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시회 구성은 월드베스트관, 디자인미래관, 디자인트렌드관, 디자인협회관 및 디자인상상관 등 총 6개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회 참가제품 중 세계 디자인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간의 편안한 삶, 지구촌 환경보호, 문화적 정체성 확립 기여 등 3개분야에 대해 '디자인-미래유산상'을 시상했다.

그외 디자인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전문회사 프레젠테이션데이', '기업 프레젠테이션데이' 등과 디자인분야 기업의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생 포트폴리오데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구랍 2일부터 진행된 '디자인코리아 국제회의'

에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아래 창의성과 인간의 삶, 사회·환경 등 디자인의 신영역을 조망했다.

특히 세계디자인계의 구루로 불리우는 존 타카라(John Thackara, 네덜란드), 영국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자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영국) 등 학계, 업계, 국제 디자인기관 등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디자인제품의 비교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디자인수준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간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디자인안목을 높여 세계적 디자인을 이해하고 선호하는 디자인문화를 형성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 산업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05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그림표지 국가표준 제정
‘3세 이하 사용금지’ 등 22개

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KS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구랍 21일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취급,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마시지 마시오’,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물에 넣지 마시오’, ‘질식위험 주의’,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 22개의 안전표지를 KS로 제정했다.

그동안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글자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전달되기 어려웠으며,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외국 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2004년에 국제표준(ISO 3864-2)으로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 디자인 원칙’에 따라 우리 문화에 맞는 국제수준의 안전표지를 개발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안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한 후, 관련기관 협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규격제정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주의·경

고 내용을 쉽게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국제기준에 맞는 그림표지 사용으로 자체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디자인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정된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림표지를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환경부
감염성폐기물 관리 RFID 기술 도입
첨단 IT기술 응용, 관리기법 개발 기대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전자태그를 이용해 유통정보를 자동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을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에 도입, 구랍 19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일산 동국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41개소 병·의원과 수집·운반업체 3개소, 처리업체 1개소가 참여한다.

이번에 시범실시되는 RFID 시스템은 전자태그가 부착된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가 리더기(Reader)를 통과하는 순간 폐기물의 운반·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전산시스템(<http://www.uwms.or.kr>)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전자저울에서 폐기물 중량

정책기관

을 계량하면 그 결과가 무선으로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발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 입력으로 처리하던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 업무에 일체의 수작업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인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사전에 방적 행정지도와 즉각적인 사고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염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운영은 정보통신부의 '05년도 RFID적용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금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수정·보완해 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폐기물 감량 공무원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발표 통해 정보 교류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폐기물감량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제도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폐기물 감량화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구립 15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했다.

1회용품이나 과대포장규제 등 폐기물 감량화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줄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 최상위의 폐기물관리정책이나 사업장이 많고(1백90만개소) 전국에 산재되어 공무원(2백34명)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해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05. 12월 현재 전국의 2백34개 시·군·구 전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규제인지도(99%), 필요성(95%) 및 준수도(94%)가 크게 제고되고 연간 4천여억원의 자원 절약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행사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전문신고인 양산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이의 개선 등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폐기물 감량화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 등 폐기물 감량화에 공이 큰 민간인과 자치단체공무원 등 총 41명에게 정부포상(8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5명) 및 환경부장관 표창(33명)이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의 영예는 면류용기를 합성수지에서 1백% 종이재질로 대체한 (주)동원 F&B 박인구 대표이사,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성실히 수행한 에스알에스 코리아(주) 버거킹 이종대 상무이사, 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서울시 강남석 중구 재활용관리팀장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에는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권석원 재활용팀 팀장 등 5명의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 인프라 확립

정부는 구랍 1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아동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3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온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및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어린이안전분야는 교통안전분야,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통합매뉴얼 개발, 어린이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05.12.1) 및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지정범위 확대·어린이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이구조장비(6종 8천4백62점),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4백8개소, 4천22명) 등으로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6.4% 감소하였으며 저가·저품질의 어린이용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비탄총·레이저용품·바퀴운동화 등(18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

(‘05. 12)하고,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안전검사품목으로 했다.

또한, 세정제·접착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신설('05. 10. 23)하는 등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어린이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기본인프라를 확립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스쿨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통계청 사망사고통계,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 소보원의 위해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통계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자원낭비 및 업체 경제적 부담 줄여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이번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기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기로 했다.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시행시 자원 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

정책기관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강화, 시행해 오고 있다.

농림부 농산물물류효율화중·장기계획 발표 '07년 배추·무 포장 유통 전면 실시

농림부(장관 박홍수)에서는 농산물 물류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구랍 2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산물의 소비자 구입액중 유통비용이 '03년의 경우 43.7%로, '02년보다는 1.3% 줄어들었으며 '03년 농산물 유통비용은 22조 8천4백여 억원으로 소비자구입액 52조 2천7백여억원의 4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운송·하역비 등은 감소돼, 상가임차료·인건비 등의 비용이 인상되어 전체 유통비용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예냉·저장, 포장고급화 등 상품성제고를 위한 비용과 상인이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산물 물류비용은 '03년말 현재 7조2천2백67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업 GDP 22조1천9백41억원의 32.6% 수준이다.

농림부는 농산물특성상 공산품에 비해 물류비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 물류비의 체계적인 절감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농산물 물류혁신대책’에 따르면,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해 산지출하단계에서는 표준규격출하와 출하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부응해 콜드체인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공동 수·배송 체계를 구축, 공차·노선차량 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산물 수송을 효율화 하기로 했으며 가락동도매시장 등 노후화되고 거래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했던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던 배추·무 포장화를 '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배추의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비의 30%와 수확상차비를 지원하였고, '96년, '04년 두 차례의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산지의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불안이 겹쳐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배추포장출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동안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07년 1월 전남 해남 등에서 출하되는 월동배추부터 시작해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등으

로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관리공사 등 배추 유통주체들의 포장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배추포장화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06년 상반기 중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119투자 계획에 반영, '13년까지 총 4조3천6백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동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04년현재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이 50.4%에서 '13년에는 80.0%로 향상되고 하역 기계화율도 17.0%에서 50%로 높아지고,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질 것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를 설치, 3회 운영하고 T/F팀을 구성해 15회 운영, 동 대책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과대포장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포장폐기물 감량선도적 위치 차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가 지난 해 11월 1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플라스



▲ 한국환경자원공사 과대포장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정책기관

택시협과 과대포장검사업무에 관한 국제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공사는 특히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최초의 공인 시험기관으로 공인됨에 따라 포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운영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됐다.

공사는 향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시험능력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재활용 기술지원을 위해 2007년까지 재활용시험연구동을 설치하고 최상의 시험·검사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개관 재활용 인식 전환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구랍 20일 월드컵공원 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일반인 대상의 종합 재활용 체험 학습장,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개관식을 열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을 여는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은 총 2백80평 규모로 5개 테마 전시코너와 1개 체험 학습장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을 소개하는 안내관을 비롯해, 자원 재활용의 이해와 현황, 분리배출을 체험하는 자원순환 이해코너와 월드컵공원과 연계해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월드컵공원의 자원순환 환경코너, 재활용산업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순환 자원회수 정보코너, 미래의 환경 선진국으로서

의 비전을 제시하는 환경 선진국소개코너가 주요 구성 콘텐츠이며 여기에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해 재활용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체험 학습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제작한 기념 조형물, 서울상징 미니어처는 캔, PET병 뚜껑, 종이, 플라스틱 등 버려진 폐기물을 이용해 재활용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서울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퍼즐 형태로 조합해 서울시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해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나 한국환경자원공사(032-560-1790)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구 등 살균소독제 개정 고시 살균소독제 인정범위 확대, 제품개발 독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품등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내용에는 제조방법에 생성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추가함으로써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과 같이 발생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제조방법에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멸균제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 우유팩, 주스팩 멸균에 사용되는 멸균제의 관리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범위에 멸균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기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 자율관리를 유도했으며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물질로 대체가능토록 재조정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 중 중복 고시되어 있어 1성분을 삭제했다.

정보통신부
우수 신제품 최장 6년간 정부 지원
 신제품 인증 표시, 신뢰보장

앞으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지정한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경우 최장 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해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획득할 경우 해당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신제품 인증' 표시를 부착,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제품의 지원기

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 받아 개발된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경우 정부 지원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연장기간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받을 때에는 그 제품은 물론 용기, 포장 등에 현행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마크' 대신 '신제품 인증'이라는 인증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제품 인증에 관한 세부 절차와 인증 심사, 지원 방법, 사후 관리 및 인증 표시 등은 별도의 고시들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의 관계자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지원기간과 지원 연장기간을 늘림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기술을 통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다 넉넉한 시간에 우수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2005 한국특허기술대전 개막

‘100대 우수특허제품전’ 열려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구랍 13일 우수발명의 창출 및 특허제품의 유통 증진,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05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을 개최하고 대통령상(1개)과 국무총리상(2개) 등 총 1백20개 발명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본격 전시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에는 기계금속, 생활용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수산, 섬유화학, 토목건축, 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총 1백49점의 발명품이 전시됐으며 전시기간 중 우수특허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발명특허품 유통박람회와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장터, 1백대 우수특허제품전이 함께 열렸다.

특히 특허제품 전문 쇼핑몰인 ‘바이인벤션’에서는 이번 특허기술대전과는 별도로 특허기술홍보관을 구성해 쇼핑몰 내에 있는 발명제품을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게 된다.

한편 이번 특허기술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내열성이 우수한 초경량의 난연성 단열재’를 출품한 정맥산업개발의 박종원 대표에게 돌아갔으며, 국무총리상은 ‘콘크리트 말뚝용 헤드커버 및 그를 이용한 말뚝 기초구조물의 시공방법’을 출품한 대호바콘텍과 ‘가정용 죽 제조기’를 출품한 이온맥이 각각 수상했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창립총회 개최

“포장·환경 토탈 솔루션” 선도

포장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친환경 포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단체가 설립됐다. 지난 해 11월 30일 노보텔엠버서더 강남에서는 자원순환포장기술원(원장 노수홍)의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 행사가 있었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은 포장을 폐기물 발생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인식을 바꿔 포장을 자원으로 보고 지속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포장기술을 개발해 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포장이 사용된 이후에 환경을 고려하기보다 포장을 개발하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분은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설립 취지문에도 잘 나와 있다.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ESSD) 자원순환형 포장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는 취지문은 도시 쓰

레기의 주범이자 대부분이 유해 폐기물이라는 인식되고 있는 포장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포장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포장기술원에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일들은 설립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에서는 설립 목적으로 ▲ 포장, 물류, 환경 토탈 솔루션 모색 ▲ 과대, 과잉포장을 적정포장설계로 개선해 포장재료 감량화 도모 ▲ 포장재료의 재활용, 재이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포장관련 업계에 대한 실현 가능한 친 환경 사회구축 ▲ 포장기술에 관한 기초, 응용, 개발연구 추구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순환포장기술원에서는 5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로, 제품 포장단계에서 포장재 사용의 적극적 감량·감용화(Reduce)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두 번째로 포장재의 재사용(Reuse)을 추구한다. 세 번째로 폐 포장재의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에도 노력한다. 네 번째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열에너지 등으로 회수하는 폐기 대책(Recover)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포장용기를 회수·반복 사용할 수 있는 회수(Returnable)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 노수홍 학장이 선임됐다. 노수홍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장은 종합기술로 여러 학문분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정역할을 해나갈



▲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창립총회 개최



▲ 노수홍 초대 회장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창립총회에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보내 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성봉 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용 장관은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설립에 기대가 높다”며 “포장재의 감량화·재사용에 대한 기술개발,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새로운 친환경 포장재 연구, 기업·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관련업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2006 10대우수포장」 선정

환경과 경제성, 기능성의 포장경향 잘 보여줘

기능성과 함께 환경에 대한 배려와 경제성을 갖춘 포장이 올해 국내포장의 특징으로 떠올랐다. 구랍 9일 발표된 10대우수포장에 선정된 제품들은 이 같은 기능성과 환경배려 등의 최근 포장에 관한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2006 10대우수포장」 시상식



▲ 2006 10대우수포장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김칭)에서는 매년 우수한 10개의 포장제품을 선정하는 『10대우수포장』이 해를 거듭하면서 빠르게 정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2006 10대우수포장』에는 전년에 비해 출품된 제품수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일부 제품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 『2006 10대우수포장』에는 총 76개의 제품이 출품했다. 이들 출품 제품들은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20개의 제품이 올라갔다. 이 중 10개 제품이 『10대우수포장』에 선정됐으며, 4개 제품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구랍 7일 열린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본선에 오른 제품들이 하나같이 우수성을 갖추고 있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몇몇 제품의 경우 심사위원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점수차가 근접해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정된 『10대우수포장』은 포장이 갖춰야 할 기능성의 향상은 물론 환경에 대한 배려와 경제성을 갖춘 제품들이 눈에 띄어 최근 포장에 대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우수포장에는 롯데칠성음료 생수 제품 「아이시스」, (주)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선물세트」, 해찬들 「강된장」, 샘표식품 「질러」, 대상 「청정원 참빛고운 압착올리브유」, (주)두산식품BG 「한국미인의 선택」, 삼양사 PET CAN, 우진팩 「LCD PANEL CUSHION」, 삼성전자 「PDP TV(42V6)」, 크로바케미칼 「200 l PE 2-Layer Drum」이다. 한편, 10대우수포장 이외에도 근소한 점수차로 인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제품들 또한 국내 패키징의 앞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사위원 특별상으로는 오리온 「별별구미」, 한국컨테이너폴 「DF751(돌리파렛트)」, 삼성전자 「Photo Printer」, 삼공제지 「17" Neckless Funnel」이 선정됐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 선정하는 『10대우수포장』은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에 출시된 소비자포장, 물류포장, 포장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성, 기능성/편의성, 그래픽 어필, 경제성/효율성, 환경 적합성, 전체적인 인상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다.

『10대우수포장』에 선정된 제품에는 우수포장을 알릴 수 있는 GOOD PACKAGING(GP)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구랍 28일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프로방스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제관인의 밤 개최

이번 달부터 원자재 가격 인하 예상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이 구랍 15일 서울 탑그린 호텔에서 제관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 조합원 인사 등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사장의 건배제의에 이어 조합원 참석자들이 제관업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철순 이사장은 “2004년 원자재 가격이 3차례 인상한 것에 이어 2005년 4월, 7%가 인상되면서 제관업계는 원자재 업체와 금속캔을 사용하는 원청업체 사이에서 원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으면 한해를 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05년 한해를 정리해 보면 금속인쇄전문업체인 대성엠피씨가 노사분규로 인한 금속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일부 제관업체 및 수출 업체가 손해를 보았으며 9월 말 식도강판이 3만5천원으로 내려가면서 캔 가격이 인하되어 소재 업체들이 적자 경영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장은 “아시아 10개국의 FTA 체결 중 수산물 분야에서 동남아산 참치캔이 유입되면 관세가 없어져 캔 가격이 인하되어 국내 제관 업계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해양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제관인의 밤 개최

수산부, 외교통산부, 포항제철 등이 합동해 참치캔 관세를 10년동안 4~5% 조금씩 내려 일반품목이 아닌 민간 품목에 가입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관산업은 전체 포장용기 중 6~7% 줄어 약 4억개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번 달부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 4월 하반기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조합은 기술적 통계를 토대로 이번 달부터 캔 가격이 더 이상 인하되지 않도록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포장기술인협의회 발족 21년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김영호)가 구립 5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21회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장기술인협의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포장기술인협의회 김영호 회장은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가 발족한지 21년이라는 오랜세월이 흘러왔다"며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한 2005년 한해였지만 회원여러분의 노고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한국포장기술인협회송년의 밤 행사 개최

유관단체

한국포장협회 김선창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포장기술인협회가 벌써 20여년이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에 경외심이 든다”며 “회원들간에 보다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덧붙여 “포장협회는 연구소 및 실험실이 마련, 앞으로 각 사업체들과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포장기계협회	정기이사회 개최
-----------------	-----------------

해외전시 한국관 구성 사업 논의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구랍 21일 2005년도 마지막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협회는 2006년도 중점 사업인 3월의 KOREA PACK 전시회의 진행사항 점검과 정부자금지원으로 시행되는 해외전시의 한국관 구성 사업인 3월 7일 중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Sino Pack과 6월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rosupak 2006 전시회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ProPak China 대한 중점 논의 했다. 신규회원사로는 라벨러 전문 생산업체인 (주)에스엠 팩(대표이사 송영태)이 가입승인 됐다. 한편 협회의 2006년도 해외전시 한국관 구성은 3월의 중국 광주 Sino Pack전시회와 6월의 러시아 모스크바 rosupak 2006 전시회는 중기청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확정 됐으며 7월의 중국 상해 ProPak China 전시회는 산자부(코트라) 자금지원 전시회로 확정됐다.

국립식물검역소	대중국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표지 의무화
----------------	---------------------------------

이번 달 1일부터 실시

한국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는 중국의 식물검역당국은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도착일 기준) 새로운 검역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갈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중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합판 등의 가공목은 제외)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처리 기준은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이상 처리해야하며 MB 기준으로 10℃ 이하에

서는 처리 불가하다.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16시간 이상 훈증해야하며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산 침엽수의 경우 24시간 이상 훈증해야 한다.

중국은 구랍 31일까지 목재포장재에 대해 기존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식품기기 '위생' 전담 협회 출항

우수기술 및 제품 발굴

식품기기(기계, 기구, 용기·포장)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책임질 협회가 설립됐다.

안전한 먹거리는 단순히 식품의 위생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가공하고 취급하는데 관련된 모든 기기가 위생적일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출발한 (사)한국식품기기 위생안전진흥협회(회장 김규태)는 식품기기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5년 4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 해 5월 23일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지난 해 11월 8일 목적사업 중 품질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식품기기에 대한 품질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관계자는 “국내 현 기준·규격은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 품질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로써 최근 대두되는 용기포장 관련 위해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보완 할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최근 국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수준 및 제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협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요청에 우리 협회는 보다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회원이 제조, 수입하는 식품기기에 대해 식품공전의 관련 기준규격과 협회 소정의 관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후, 심사적합 판정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품품질인증과 그 밖에 식품기기 제조 작업장과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를 이행토록하고, 이어 공장인증을 신청한 업소에 대해 공장인증심사를 통해 심사적합 할 경우 인증을 해 주는 우수식품기기제조관리인증으로 시행 할 것이다.

또한 △ 식품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위생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식품기기제조 우수기술 및 제품에 대한 발굴·보급 △ 교육·홍보 △ 품질인증 △ 기준·규격 조사 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탁하는 조사·연구 △ 국내·외 교류 협력 △ 회원간 정보교류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며, 관련 업계 및 업체와 함께 식품기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 www.kfspa.or.kr 전화 : (02) 2652-8041, 팩스 : (02) 2652-8042

(주)지앤씨코리아
플라스틱 생분해 생산시설 증설
 일회용 용기, 각종 포장재 활용

(주)지앤씨코리아(대표이사 이상한)가 일반 플라스틱에 일정량(5~40%)을 첨가, 플라스틱 제품을 완전 생분해시키는 첨가제(제품명: 프라제로®)를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년산 1만톤의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주)지앤씨코리아의 이상한 사장은 “1996년부터 원료 개발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주)지앤씨코리아 중국공장(요령성 영구시 바이첸 경제기술개발구)을 통해 연 4천8백톤 규모의 원료를 시험 생산 판매해오다 국내외의 주문물량 증가로 인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5년 전세계적인 분해성 수지의 시장규모는 대략 35만톤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규제 중이거나 검토 중이며, 분해성을 제외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의무화, PVC의 포장 용도로 사용금지, 분해성 쇼핑백과 플라스틱 음료병의 사용 의무화 등 각종 분야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대략 연간 4백톤 정도 규모로 매우 미미하다. 이는 기존 분해성 플라스틱의 높은 가격과 제한된 물성으로 시장형성이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05년 3월부터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시범사업실시 등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International Biodegradable Polymers

Association and Working Groups, IBAW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전세계 플라스틱 1억톤 이상의 플라스틱 시장의 20% 정도가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IBAW의 추정엔 프라제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존에 고가(기존 플라스틱의 3~10배)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의 성장만을 가정한 것으로 프라제로®의 개발로 인해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장판도가 완전히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한 사장은 프라제로®는 기존에 소개됐던 전분 등을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생분괴성 플라스틱과는 달리 범용 합성수지에 첨가하는 첨가제로서, 프라제로®가 첨가된 플라스틱을 프라제로®의 작용으로 플라스틱 자체를 1백%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킴을 강조했다. 또한 “합성수지에 첨가하는 물질로써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이었던 플라스틱 고유의 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격대는 범용 플라스틱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원가상승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앤씨코리아는 금번 설비증설을 통해 그간 높은 제조원가로 상용화에 걸림돌이 됐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농업용 멀칭필름, 일회용 용기, 각종 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통해 기존 다국적기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의 경쟁에서 그치지 않고 범용 플라스틱 제품시장을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이외에도 프라믹스®라고 하는 “원가절감용 첨가제”를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원료와의 배합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물성은 유지하고 플라스틱제품의 가격을 3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 프라제로®와 프라믹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비의 교체가 필요 없이 기존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에 따른 추가설비투자가 없고, 가공성이 우수해 사출, 압출, 블로우, 발포 등을 할 수 있다.

상호 : (주)지앤씨코리아(GNC KOREA Co.,Ltd)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521-10
TEL : 031-997-9855 FAX : 031-997-9858

무림제지(주) · 신무림제지(주)
창립 50주년 엠블렘 제작
'People & Smile' 주제

무림제지(주)(대표이사 김인중)와 신무림제지는 2006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렘을 제작했다. 'People & Smile'을 주제로 한 이번 엠



▲ 무림제지(주) · 신무림제지(주) 창립 50주년 엠블렘 제작

블램은 3개의 컬러 섹션으로 구성된 레드와 그린, 블루의 파스텔톤 조합으로 타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사각형태가 주목을 끈다.

디자인 면에서는 손을 모티프로 지난 50년간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어온 무림인의 기상과 인간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며, 프리핸드로 직접 그린 듯한 내추럴한 디자인은 부드러우면서도 환경 및 고객과의 친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이번 엠블렘 제작을 계기로 내년부터 일년간 제작될 모든 간행물과 홍보물에 게재해 창립 50주년을 홍보할 예정이며, 2006년 캘린더와 다이어리에도 활용했다.

제지업계
종이 종류따라 주가희비
골판지 · 위생지 업체 강세

제지주의 움직임이 종이 종류에 따라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인쇄용지 비중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골판지와 위생용지 종목들은 강세다.

골판지시장이 경기회복에 더욱 민감하고 위생용지의 경우 최근 펄프가격 하락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인 아세아제지와 동일제지는 지난 해 11월 20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초 5천원대에 머물렀던 아세아제지는 이날 7.84% 급등하며 7천7백원까지 오르는 등

업계동정

두달째 상승 중이다.

동일제지도 지난 해 11월부터 꾸준히 올라 이날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인 8천50원까지 상승했다.

이 밖에 신대양제지(4.62%) 대양제지(7.92%) 수출포장(2.31%) 등도 이날 상승세를 타는 등 골판지 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위생용지 제조사인 대한펄프는 이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가 12.83% 오른 4천7백50원으로 마감됐다.

화장지 제조업체인 모나리자도 이달 들어 급상승 중이다.

반면 신문림제지 한국제지 남한제지 등 인쇄용지 업체들 주가는 최근 두달 이상 개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경기 회복으로 제지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골판지와 위생용지 부문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병 신홍증권 연구원은 “골판지의 경우 내년부터 상자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유팩업계
미국산 우유팩 원지 구입 어려워
국제유가 상승 원인

국내 우유팩 업계에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올초부터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플라스틱팩 우유가 줄고 종이팩 우유가 늘어나면서 국내 업계에 미국산 우유팩 원지 구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유팩 생산업체인 한국팩키지 이우식 사장은

“미국 유음료 업계가 종이팩 사용을 늘림에 따라 국내에 원지를 공급하는 미국과 핀란드 원지 생산업체가 올 하반기부터 수출가격을 15~20% 인상했다”며 “특히 이 중 한 회사는 이번 달 1월 선적분부터 추가로 16%를 올리겠다고 최근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게다가 플라스틱팩과 종이팩을 반반씩 사용해 온 미국 유음료 업체가 유가 상승으로 플라스틱팩 유제품 생산을 줄이는 대신 종이팩 유제품 생산을 5%가량 늘리면서 한국에 할당되는 팩 원지 물량도 줄어들게 된 상황이다.

사실상 우유팩 원지 시장은 독과점에 가까워 이번 공급가격 인상에 국내 종이팩 생산업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유팩 원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초대형 제지회사인 미국의 아이피 등 3개사와 핀란드의 스토라엔소 등 모두 4개사다. 국내 우유팩 제조사들은 이들 기업에서 원지를 수입해와 단순히 팩 원지에 인쇄물을 새기고 팩 모양에 맞게 자르고 접는 공정을 할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음료 업체에 원지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종이팩 공급을 아예 끊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주)텍스텍
LCD PVA 필름 국산화 성공
패 부직포 활용 신기술 양산체제 구축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LCD용 PVA(폴리비닐알코올)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필름 양산

체제를 구축,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연간 1천억 원대의 PVA 필름 시장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주)텍스테크(대표이사 신재균)다.

(주)텍스테크는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5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연구소를 갖추고 매년 매출의 10% 가량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신재균 대표이사는 “기술개발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주)텍스테크는 부직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2년간 연구해 왔다.

연간 1백20톤 이상 발생하는 폐부직포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때 영남대학교 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돼 공동과제로 선정, 해결에 나섰다.

(주)텍스테크가 영남대 클러스터사업단과 공동으로 연구한 지 1년만에 그동안 쓸모없이 폐기되던 PVA 폐부직포에서 최첨단 신소재를 얻어내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PVA 필름은 선글라스에서부터 핸드폰, 카메라폰,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TV, 프로젝션 장치, 옥외광고판 등 편광필름을 사용하는 TFT-LCD 제품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부품이다.

신 사장은 “인조대리석 제조용 필름, 분리필름, 수용성 필름, 내산소투과성 포장필름 등에도 활용되며 고부가가치를 넣고 있는 21세기형 신소재”라고 말했다.

물에 잘 녹는 PVA의 성질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돼 전량 일본 제품에 의존해 왔다. 일본 일부기업만이 PVA 특성조절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핸드폰이나 카메라폰 제작 시 필요한 폭 1m PVA 필름은 Kg당 5만원, 컴퓨터 모니터나 벽걸이 TV 제작에 필요한 폭 2m 이상 PVA 필름은 kg당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높은 원가로 수입했다.

더구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까지 겹쳐 국내기업들은 2중·3중고를 겪어왔다.

이번에 개발한 필름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PVA 분말을 이용한 필름과는 달리 그동안 쓸모없이 폐기되던 PVA 폐부직포에서 최첨단 신소재를 얻어내는 신기술이다.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PVA 필름 시장에서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2005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LCD용 광학필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됐다.

신 사장은 “내년 4월이면 필름이 생산될 예정”이라며 “품질이나 생산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시장 진입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텍스테크는 1993년 경기도 포천에서 부직포 제조업체로 출발해 96년 국내 최초로 PVA를 이용한 수용성부직포 ‘솔텍스(Soltex)’ 개발에 성공해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물에 녹는 특수섬유를 개발해 2001년 1월에는 신기술개발업체로 지정됐다. 올해 초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 14001)을 획득한 건실한 업체다.

음료업계
음료시장 침체속 茶 강세
포장 및 디자인 변경 활발 예상

올 음료시장이 경기침체 여파로 6%나 뒷걸음질치는 고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가 올 한해 시장을 결산한 결과, 올해 국내 음료 시장은 3조4천억 원대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지난해 4%대 성장한 탄산음료 시장은 전년대비 7%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경기에 민감한 주스음료 역시 9%의 큰 폭 하락이 예고됐다. 특히 지난해 1조원 매출을 넘어선 주스 시장은 올해 다시 9천1백억원대로 내려앉는 부진을 보였다.

이 밖에 미과즙 음료와 지난해 가세한 아미노산 음료 등으로 활성화됐던 니어워터 시장도 올해는 지난 해보다 30%가 넘게 감소해 8백5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스포츠음료 역시 실적은 전년비 10% 감소, 침체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건강지향 트렌드의 강세로 올해도 생수와 차, 기능성음료 시장은 불황을 비껴갔다.

비타민<콜라젠<식이섬유 음료 등 기능성 음료는 전년비 30% 성장한 1천3백억원 시장을 형성했으며, 녹차의 경우 전년비 50%가 넘는 신장세를 보이며 5백억원대의 실적을 올렸다.

차 음료 전체는 30% 가까이 신장, 시장 규모가 1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생수 시장도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3백2백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2006년에도 음료시장은 2~3%대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박 신제품의 출현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기능성 신제품을 통한 시장 창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포장과 디자인 변경 등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림포장공업(주)
계열사, 태림후지포장 추가
계열사 10개로 늘어

태림포장공업(주)(대표이사 고삼규)은 구랍 13일 출자에 의해 (주)태림후지포장공업을 계열회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이 계열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곳이다. 변경 후 태림포장공업의 계열사 수는 10개다.

GM대우
인천항 부품포장수출센터 첫삽
연간 60만대 규모, 이달중 기공

인천시와 GM대우 등에 따르면 GM대우와 운송하역업체인 대한통운, 한진은 구랍 14일 공사를 시작, 7개월 동안의 공사에 들어갔다.

3사는 이달 안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닉라일리 GM대우 사장,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원영 한진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부품포장수출센터(KD, Knock Down)센터는 자동차 부품을 KD센터에서 분류, 포장한 뒤 컨테이너에 담아 수출해 해외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곳으로 완성차로 수출할 때보다 관세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부품포장수출센터는 GM대우가 운송하역업체인 대한통운 및 한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사업비 3백60억원을 투입, 4부두내 2만5천평 부지에 센터 지상 2층 연면적 1만4천평과 야적장 1만 2천평 규모로 건설한다.

센터의 건물은 대한통운과 한진이, 센터내부의 조업설비는 GM대우가 각각 맡는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GM대우는 차량 60만대 분량의 부품을 이곳에서 재포장해 중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인도, 이집트 등 해외 11개국으로 수출, 현지에서 조립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GM대우 인천공장의 생산규모가 연간 40만대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물량이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2006년 ~ 2009년 연평균 2조8백89억, 취업유발 효과는 1만1천6백76명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시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향후 4년간 연평균 1조5천666억원에 취업유발 효과 8천7백56명이며 건설기간 중 효과는 생산유발과 취업유발 효과는 각각 7백36억원과 7백87명씩으로 예측했다.

대한통운도 예상기대 효과와 관련, 상시 고용효과 1천여명, 물동량은 9만5천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항만공항 물류과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에는 2백60여개의 부품업체가 가

동중에 있으며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추진중인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완성되면 인천은 자동차 산업 메카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GM대우는 설계변경 등을 거치느라 구랍 15일야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식품업계
재료 '유통기간' 생산자 실명 표기
 소비자 신뢰도 높아 확대 시행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생산자 실명제(일명 클린푸드제)'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포장지에 판매업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재료와 유통기한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업자를 믿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식품관리제도. 클린푸드제의 장점은 대부분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만든 조리·반조리 식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도 수수료 매장인 개인임대 코너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특히 소비자도 간단한 스낵류나 김밥, 양념 반찬류 및 반조리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위생상태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보다 일단 대형매장의 이름만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만두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해 7월부터 시내 중·대형

업계동정

마트(매장면적 300㎡ 이상) 내 즉석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클린푸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매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다. 시와 각 구·군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관내 중·대형 마트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참여하기로 한 매장에는 출입구에 현수막과 표찰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했고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포장지에 위생관리 책임자와 제조시간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위생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남구, 계양구, 동구 등 인천 관내 6백3곳의 할인매장 즉석판매대 중 약 4백여 곳에서 현재 클린푸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유통업체도 즉석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까르푸 계산점 송해미 위생사는 “제도 도입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기한이 지난 채고식품은 일단 폐기하고, 즉석식품의 재료와 유통기간 점검도 일 2회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 환경위생과 김용철 위생지도팀장은 “클린푸드제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40㎡ 이상 소규모 마트와 영세업체 등에도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작전점을 찾은 한 주부는 “생산자 이름만 적혀있지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기관명이 없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지원,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OB맥주(주) 가정용시장 개척 '일등공신' 큐팩 마케팅 더욱 강화

지속되는 불황으로 전체 주류소비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페트병 맥주는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꾸준히 얻고 있다.

2003년 11월 국내 최초로 오비맥주(주)(대표이사 김준영)가 1.6ℓ 대용량 OB큐팩(Q-pack)을 출시하면서 시작된 페트병 맥주는 가벼운 무게, 이동의 용이성, 깨지지 않는 포장 용기 등 기존 맥주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로 새로운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오비맥주는 1.6ℓ 대용량 큐팩을 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음용 패턴을 연구했다.

맥주의 주소비층인 20대의 음용 형태가 점차 개인화되면서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셔도 각자의 병 또는 캔을 가지고 음용한다는 것에 착안해 오비맥주는 지난 해 6월 병보다 가볍고 안전하고 편리한 7백ml 소용량 큐팩을 출시했다.

맥주시장에서 톡톡히 효자상품 노릇을 하고 있는 페트병 맥주는 지난 해 들어 9월까지 총 1천8백83KHL(1KHL=10만ℓ)가 판매되며 같은 기간 전체 맥주시장 규모인 1만2천6백15KHL 중

15%를 차지했다. 가정용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페트병 맥주 규모는 가정용 시장 규모의 30%를 넘어섰다는 계산이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맥주 3병 중 한 병이 이미 페트병으로 대체된 것이다.

오비맥주는 국내 페트병 시장이 전체 맥주시장의 25%, 가정용시장의 50%선에 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비맥주는 올 해부터 큐팩 마케팅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소비자 지원, 광고, 프로모션 등을 통해 페트병 시장에서 큐팩의 시장점유율을 52%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과업계
키즈마케팅 강화
다양한 포장디자인 도입

초등학생들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서 제과업체가 '키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해태제과의 '베리베리통통'은 키즈 마케팅을 통해 히트상품으로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다.

어린이용 무설탕 풍선껌 '베리베리통통'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디자인, 맛까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다.

주요 풍선껌이 판형태인 데 반해 '베리베리통통'은 어린이들이 시각적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것에 착안해 포장디자인에 윈터치 방식의 투명 용기를 도입했다.

또한 재미적 요소를 위해 사각형 모양의 작은 껌 속에 왕구슬 껌을 넣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왕구슬에 대한 반응이 좋아 블루베리 맛에 이어 메론맛을 출시하면서 왕구슬껌의 개수를 2개로 늘리기도 했다.

해태제과는 키즈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올초 키즈 브랜드매니저팀을 신설, 어린이 고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크라운제과의 '마이썸'도 키즈마케팅을 통해 사양제품으로 취급된 씹는 캔디 시장을 부활시킨 제품이다. '마이썸'는 소프트 캔디의 약점인 치아에 달라붙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경쟁사에서 사용하던 인공색소를 천연색소로 교체했으며, 웰빙 컨셉트에 맞게 과즙을 사용해 맛과 색을 냈다. 포장도 어린이들이 휴대와 취식이 쉽도록 소포장 형태로 바꿨다.

롯데제과의 '유희왕 사파리' 과자 역시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유희왕'을 제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사용해 인지도를 높였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작해 제품 안에 함께 넣었다.

롯데제과는 '유희왕' 등을 비롯한 각종 캐릭터 등을 통해 키즈 세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LG화학(주)
폴란드에 편광판 후가공 공장
4백40억 투자

LG화학(주)(대표이사 노기호)이 폴란드에 LCD(액정표시장치)용 편광판 후가공 공장을 짓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수도 바

업계동정

르사바에서 남서쪽으로 4백km 떨어진 브르초와 프에 4백40억원을 들여 편광판 후가공 공장을 짓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편광판 후가공은 전가공에서 생산된 필름 형태의 편광판을 자른 뒤 검사와 포장을 하는 공정이다.

LG화학은 2오는 5월께 공장을 착공, 2009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앞서 LG화학은 구랍 9일 편광판 후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최저 출자금액인 1만3천3백유로(1천5백만원)를 들여 생산법인인 LG화학폴란드SP를 세웠다.

편광판은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등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핵심 광학필름으로 빛의 일정방향 성분만 통과시키는 편광기능을 가진 6층 복합필름이다.

LG화학은 2000년 독자기술로 편광판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국내 시장의 35%, 세계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LG화학은 편광판을 생산해 LG필립스LCD의 폴란드 브르초와프 LCD모듈공장에 납품하게 된다.

농산물업계
비닐봉지 대신 종이상자 대체
운반 및 보관 용이로 고객 선호

최근 농산물 가운데 포장용기에 담겨 나오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년에는 직접 포장용기에 담아서 따로 포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들 포장용기 제품은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선물하기에도 편해 고객들

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2~5kg 등으로 포장단위가 작아지면서 상자 한쪽 면을 접어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포장용기 제품은 날개 제품을 적절히 조합해 포장으로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진공포장으로 공기의 접촉을 차단해 미생물 등 외부 오염요소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장점도 있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식품팀 김치코너에서는 포장용기에 지퍼가 달려 있거나,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포장김치가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포장김치 1박스를 3만7천~4만7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포장김치의 경우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식품매장에서는 감자, 고구마, 호두를 팩으로, 유기농 토마토, 버섯종류 등은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는데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관도 용이해 인기를 얻고 있다.

메가마트에서도 과일 세트류 포장에 있어 10kg, 15kg 상품이 주종을 이뤘으나 핵가족화로 점차 소포장 형태로 바뀌는 추세다.

메가마트 동래점에서는 배, 사과, 밀감, 오렌지, 키위 등을 5kg이나 7.5kg 박스에 손잡이를 달아 고객들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판매하고 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고구마나 감자도 종이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데 운반이 편리해 고객들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 영주시는 케이크 모양의 상자에 사과를

넣어 '영주사과' 라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사네프레' 라는 브랜드로 5kg짜리 농산물 선물세트 상자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황인복 과장은 "선물세트에 많이 사용하던 포장 형태가 최근에는 일반 판매용 농산물에서도 선보여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평양
화장품 용기 재활용 체질화
환경 캠페인 등 실시

(주)태평양(대표이사 서경배)은 환경 경영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제품 용기를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로 만들었다.

화장품 용기도 자연과 가까운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다. '자연의 휴식'이라는 브랜드 컨셉트와 친환경 사업이 잘 맞기 때문에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회사는 재활용 용기를 활용한 것으로 2001년 '그린포장 위너상'도 받았다. 이니스프리는 소비자들에게 환경 체험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캠퍼스 그린라이프 캠페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회사는 쓰레기 봉투를 나눠준 뒤 이곳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다. 매년 경기도 포천 허브농장에서 여는 '허브 체험행사'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남대
폐기물 재활용 PVA 제조기술 개발
국산화성공 수입 대체

폐기물을 재활용해 최첨단 신소재인 PVA(폴리비닐알코올) 필름을 제조하는 신기술이 지역 대학 연구팀과 업체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영남대 유기겔클러스터사업단은 구랍 9일 섬유 관련 중소기업 (주)텍스테크(대표이사 신재균)와 함께 세계 최초로 폐(廢)부직포를 재활용해 LCD용 PVA 필름을 제조하는 획기적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폐부직포는 PVA를 이용한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친환경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드는 애물단지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PVA 필름 양산 체제를 구축해 국산화에 성공, 일본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PVA 필름의 경우 LCD용 광학필름을 만드는 원자재로 그동안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단은 이번 PVA 필름 제조 기술 개발로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국내 PVA 필름 시장에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현재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LCD용 광학 필름 시장에서 국내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PVA 필름은 선글라스, 휴대전화, 카메라 폰, 컴퓨터 모니터, 벽걸이 TV, 프로젝션 장치, 옥외광고판 등 편광필름을 사용하는 TFT-LCD 제

업계동정

품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부품일 뿐만 아니라 인조 대리석 제조용 필름, 분리필름, 수용성 필름, 내산 소투과성 포장필름 등에도 활용되는 고부가가치를 넣고 있는 21세기형 신소재로 특히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한일제관(주)
사각 육가공용 캔 출시
 다음달 초 한일 G&M 출범

국내 최대 캔 제조업체 한일제관(주)(대표이사 정동택)이 덴마크 육가공용 캔 제조회사 G&M 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각 육가공용 캔 생산에 나선다. 둥근 캔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육가공용 사각 캔은 지난 18년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한일제관측은 “양사가 최근 총투자금액 2백억 원 중 각각 50%를 투자해 합작법 인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면서 다음 달 초 합작법인 한일 G&M을 출범시키고 충북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제관은 음성에 용지를 이미 매입했으며 G&M도 코트라에 투자신고를 마친 상태다.

2006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음성공장에서서는 육가공용 사각 캔과 원터치 뚜껑을 비롯해 총 1억개의 캔과 2억7천만개의 뚜껑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제일제당 롯데햄 등 주요 식품회사가 햄 포장용 위해 소비하는 캔은 연간 1억개 정도다.

정동택 한일제관 사장은 “사각캔과 원터치 뚜

껍은 둥근캔에 비해 기술이 어렵고 과다한 투자비가 들어 지난 18년 동안 국산화가 지연돼 왔다”며 “수입은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캔에 다양한 인쇄를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제관은 사각 육가공 캔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2백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3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일제관은 60년이 넘도록 캔 제조에서 한우물을 파왔다.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맥주캔 통조림캔 음료캔 페트병 등을 생산해 지난해 1천8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SK케미칼(주)
컬러 마케팅 실시
 제품인식 확산

SK케미칼(주)(대표이사 김창근)의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 패취는 관절 부위에 직접 부착해 사용한다. 관절염 치료 패취(patch)인 트라스트는 마케팅 전략으로 ‘노란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제품 자체의 특성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를 거듭하던 이 회사는 트라스트 패취에 사용되던 ‘피록시캠’이라는 소염진통 약물이 노란색임을 내세워 이같은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일종의 컬러 마케팅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의 노란 신호등, 상가 건물의 노란 애드벌룬, 비 오는 날 노란 우산은 물론 축구의 옐로 카드와

한가위 보름달까지 노란색을 연상시키는 소재를 모두 동원하다시피 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고유의 색상을 기억하게 해 제품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트라스트는 론칭 당시에는 트라스트의 파우치(개별 속 포장)와 카톤(carton)은 푸른 계열의 색인 파란색 계열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란색 캠페인과 함께 파우치와 카톤을 포함한 기존의 트라스트 관련 포장 디자인들은 노란색으로 바꾸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트라스트의 ‘노란약 캠페인’이 실시되고 난 후 시중 약국에서는 ‘노란약 주세요’라고 제품 고유의 색깔을 지명해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포장에 PVC 사용 중단
 PET나 마분지 사용 계획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환경 보호를 위해 대표적인 독성 환경 호르몬 배출물질인 폴리염화비닐(PVC)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구랍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MS는 지난 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36만1천 파운드에 달하는 PVC를 제거했으며 연말까지 PVC 사용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MS는 일부 제품 패키지 포장에 PVC를 이용해 왔다.

MS는 앞으로 제품 포장 재질로 PVC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수지(PET)나 마분지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 할인점 체인인 월마트와 컴퓨터 업체 휴렛패커드 등도 제품 포장 등에 PVC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품업계
친환경 제품 인기
 김치 파동 및 웰빙 관심 관심 증가

최근 김치 파동과 함께 웰빙·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뿌리를 자르지 않고 흙이 묻어 있는 ‘자연 그대로’ 포장한 친환경 제품들이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에서는 뿌리를 자르지 않은 제품으로 미나리, 대파, 갓, 무, 숙음배추, 열무, 쪽파 등을 선보이고 있다.

뿌리를 자른 제품과 자르지 않은 제품의 판매량을 보면 대파는 5배, 쪽파는 3배, 양파는 10배 가량 자르지 않은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 또한 무청(무의 잎과 잎줄기)이 잘린 제품보다는 무청이 붙어 있는 제품이 2배나 많이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식품팀 농산코너에서도 다들지 않은 채소류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신장했고 동래점 또한 18% 가까이 늘어날 만큼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구랍 6일 현대백화점 부산점을 방문한 주부 이연희(47·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씨는 “자연 그대로 포장한 버섯은 오래 보관해도 손질한 버섯보다 오래가고 선도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신 제품 ❁

선광자동밸브

PRESSURE REDUCING VALVE SRCV-20W

소형경량, 내구성 뛰어나

선광자동밸브(대표 콕병규)의 SRCV-20W 모델은 국내 최초로 ALL SCS13 정밀주조로 된 감압+유량 조절을 일체화 시킨 P.R.V이다.

이 밸브의 특징은 소형 경량으로 내구력이 뛰어나며, 1차 압력의 많은 편차에도 불구하고 2차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된다.

SIZE는 PT 1/2, 3/4, 1"이며, FLANGE로 사용할 경우 알곤 용접 취부하여 사용한다.



롯데제과(주)

지중해 과일맛 자일리톨껌 출시

플로그램 포장 기법 도입

자일리톨껌 소비층의 취향이 다양화되면서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수길)가 과일맛 자일리톨껌 '+X 블루시트러스'를 선보였다.

자일리톨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과, 상큼하고 시원한 스위트 맛이 조화를 이뤄 상승효과를 이루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자일리톨껌과 같이 알약 형태의 코팅껌인데,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휴대성을 위해 포장 케이스를 명함케이스 크기로 콤팩트하게 설계하고, 껌의 특징과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 포장에 플로그램 기법을 도입했다. 제품명 '+X블루시트러스'의 '+X'는 자일리톨을 더했다는 의미이고, 블루시트러스(blue citrus)는 (푸른 지중해 연안에서 자란) 신맛 나는 푸른 과일(스위티)을 일컫는다.

한편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민트향 자일리톨과 함께 과일맛 자일리톨껌이 인기를 얻고 있어 이번 '블루시트러스'에 거는 기대도 크다.



풀무원

‘생가득 생수프’ 출시
포장된 채 3분간 중탕

(주)풀무원(대표이사 이규석)은 간편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수프인 ‘풀무원 생가득 생수프’ 3종을 출시하며 수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풀무원 생가득 생수프’는 고구마, 버섯, 샐러리 등 신선한 채소에 우유, 생크림, 치즈를 듬뿍 넣어 집에서 끓인 듯한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고, 열처리를 최소화한 ‘생지향 공법’으로 만들어져 재료의 씹히는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야채와 쫄깃한 조갯살이 조화를 이룬 ‘클램 차우더 수프’, 양송이 버섯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양송이 야채 수프’, 달콤한 군고구마와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진 ‘고구마 치즈 수프’ 등 3종류가 있으며, 포장된 채로 끓는 물에 3분간 중탕하거나 전자레인지에 1~2분 가량 데우기만 하면 된다.



KT&G

연말 신제품 엔츠(ENTZ) 출시
컴팩트 사이즈 흡연충족감 높여

KT&G가 컴팩트 타입을 컨셉트로 하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KT&G는 구랍 15일 ‘Entertaining Zenith’의 머릿글자를 조합한 신제품 엔츠(ENTZ)를 출시했다.

KT&G는 슬림한 사이즈에 풍부한 맛을 갖춘 신제품 ‘엔츠’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 포장으로 맛은 좋고 순하면서도 흡연 충족감이 높아 흡연량을 줄



업계동정

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G측은 “최근 IT산업의 트렌드인 컨버전스에 맞춰 크기가 작으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이즈는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길이 84mm를 유지하면서 굵기는 22mm로 기존 슬림형 제품 사이즈인 컴팩트 레귤러 타입(compact regular type)이다.

롯데제과(주)

씹어먹는 유산균 ‘루테리플러스’ 시판
 휴대성 실린 둥글고 아담한 용기 적용

롯데제과(주)(대표이사 한수길)가 건강식품 브랜드 헬스윈은 이달부터 세계적인 유산균 개발 전문기업인 스웨덴의 바이오가이아사의 세계특허 제품인 루테리유산균을 독점 공급 받아 ‘루테리플러스’를 개발, 판매한다.

‘루테리플러스’는 바이오가이아사가 사람의 모유에서 분리, 세계적 특허를 획득한 유산균을 공급받아 정제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루테리는 강한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장내 유익균으로 증식하며, 또 유해균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장 운동에 도움을 줘 배변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 제품은 물 없이 간편하게 하루 한 알씩 씹어먹는 츄어블 형태로 섭취가 편리하며, 또 저칼로리 무설탕이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기존 유산균(요구르트 포함) 제품의 경우 유산균과 함께 고칼로리의 다른 성분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

또 이 제품은 휴대성을 살려 둥글고 아담한 용기에 2개월 분량씩 담았으며, 모유에서 분리된 유산균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자인도 모유를 먹는 아기의 모습을 넣었다.

이 제품은 이달부터 홈쇼핑, 할인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복합 기능 방향제 출시
 어린이 보호포장 기술 적용

방향효과와 악취제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기능성 방향제가 나왔다.

LG생활건강은 방향효과와 악취제거 기능이 들어있는 복합 기능 방향제 '파르텔 매직듀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파르텔 매직듀오는 2층 구조를 적용, 상단의 유색 방향층과 하단 무색 탈취층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 기능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은 물론, 내용물이 줄어드는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녹차성분을 사용해 공기 중 악취를 없애주고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천연향을 은은하게 휘산시켜준다.

저 중심 설계로 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해 책상 위, 화장실 등 평평한 곳 어디에나 놓아두고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음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기에 어린이 보호 포장 기술을 적용했다.



농심

'군고구마 쌀과자스낵' 출시
 저칼로리로 여성 소비자 공략

(주)농심(대표이사 신동원)은 군고구마와 쌀을 소재로 한 새로운 과자 스낵 '군고구마 쌀 과자스낵'을 개발, 출시했다.

'군고구마 쌀 과자스낵'은 바삭바삭한 쌀과 맛있게 구워진 고구마 속살의 맛이 잘 어우러진 깔끔한 스낵이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달콤한 고구마 맛이 입맛 당기는 과자 스낵으로 조직이 바삭바삭하고 씹는 느낌이 좋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영양 간식 '군고구마 쌀 과자스낵'은 튀기지 않고 구워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낮아 여성들의 간식으로 제격이다.



오뚜기

오트밀 3종 출시

국내 최초로 선보여

오뚜기(대표 강신국)가 간편성과 함께 풍부한 영양과 맛을 갖춘 아침대용식 '오트밀' 3종(넛트, 녹차, 오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오뚜기 '오트밀'은 오토(귀리), 호두, 아몬드, 녹차, 오곡 등 건강지향적 원료를 이용한 웰빙 지향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끓는 물에 30초면 고소하고 맛있는 오트밀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뚜기 '오트밀'은 단순히 오토를 갈아놓은 일부 수입제품과 다르게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스프와 죽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 오트밀이라는 생소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귀리를 볶은 다음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오트밀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침대용식, 아기들의 이유식, 빵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오트밀 시장은 일부 수입제품이 수입상가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제품으로는 오뚜기의 '오트밀'이 최초로 선보였다. 최근들어식이섬유가 높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네슬레

리뉴얼 '테이스터스 초이스' 출시

영양성분, 제품 포장에 표시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한국네슬레는 더욱 깔끔하면서도 깊고 부드러워진 맛과 향의 '테이스터스 초이스' 오리지날, 마일드 모카, 디카페인 커피 3종을 동시에 출시한다.

3천여명에 이르는 소비자 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이번 신제품은 커피 판매량 세계 1위 네슬레만의 노하우로 원두의 겉과 속이 균일하게 익도록 천천히 볶아 깊고 부드러운 맛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신기술인 클린 컵(Clean Cup) 공법으로 커피 추출과정에서 생기는 잔여물을 분리해 맛이 깔끔하고 커피잔에 블랙으로 탔을 때 커피색이 맑고 투명하며, 커피 진공향 추출 보존 공법으로 천연 원두의 풍부한 향까지 잡아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 테이스터스 초이스 브랜드 매니저 권유정씨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위해 5백개 이상의 샘플 제품을 생산해 2천회 이상 제품 특성을 분석했다”며 “까다로운 입맛으로 소문난 한국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는 이번 커피는 커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워진 ‘테이스터스 초이스’는 커피 본연의 풍부한 향과 부드러움을 살린 ‘오리지널’, 은은하고 구수한 ‘마일드 모카’, 카페인 자극 없이 깔끔한 ‘디카페인’의 세가지 타입으로 출시됐다. 한편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제품 포장에 천연 폴리페놀 함유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 웰빙과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건강상식과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우유

‘목장 신선 우유’ 출시

병 뚜껑, 밀봉성 높여

서울우유(조합장 김재술)는 목장에서 갓 짠 우유의 신선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라는 브랜드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우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 최고 등급인 1등급 A 원유만을 사용해서 서울우유의 최첨단 친환경 공장인 거창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생산 환경 최적화를 위해 생산설비를 외부와 차단 시키는 물론 우유의 이미 이취를 HEPA 필터로 걸러내는 HEPA공법과 비접촉 클린 충전 공법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청정우유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유의 병 뚜껑을 안전하게 밀봉함으로써 제품 위생과 안전성을 높였다.

개봉 후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냄새 유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우유 본래의 신선함과 맛을 그대로 보존시킨다는 설명이다.



폴무원

'SOGA 콩이랑' 출시

건강한 콩 디저트 이미지 강조

폴무원(대표 이규석)은 최근 유기농콩(미국산 대두)을 통째로 갈아 만든 콩 디저트 'SOGA 콩이랑' 3종을 출시했다. 'SOGA 콩이랑'은 무지방 디저트로 콩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폴무원은 무지방, 식물성을 강조한 새로운 컨셉의 콩 디저트 'SOGA 콩이랑' 출시를 통해 유제품으로 만든 푸딩, 케이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판 디저트 시장에서 '콩 디저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디저트 매대가 아닌 두부 매대에서 판매함으로써 건강한 '콩 디저트'의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신선함을 위해 냉장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SOGA 콩이랑'은 콩 전체를 갈아 만든 디저트에 새콤한 블루베리 토핑이 있는 '콩이랑 플레인' 콩과 단호박 과육을 넣어 만든 디저트에 통단팥 토핑이 있는 '콩이랑 단호박' 콩과 국내산 녹차를 믹스한 디저트에 옥수수, 맥아, 귀리 등 몸에 좋은 곡류 크런치 토핑이 있는 '콩이랑 녹차'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오뚜기

'꽁치 통조림' 출시

각종 찌개 및 요리 활용

(주)오뚜기(대표 강신국)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꽁치 통조림'을 새로 선보였다.

'오뚜기 꽁치'는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자연산 꽁치를 그대로 담아 뼈째 먹을 수 있는 등푸른 생선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연산 꽁치를 깨끗이 손질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해 꽁치 고유의 풍부한 맛을 살려 그대로 먹어도 좋고 각종 찌개 및 요리에 활용, 꽁치 특유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 콩치는 35년 이상 쌓아온 맛의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정성껏 만든 제품”이라며 “참치 이후에 새롭게 선보이는 수산물 통조림 제품인 만큼 풍부한 맛과 영양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주)

작은 두공기 · 2인분 햇반 출시

식생활 패턴에 맞춰 양과

CJ(주) 햇반이 겨울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작은 두공기 햇반, 2인분 햇반과 겨울철 별미 단팥죽, 단호박죽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

햇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은 두공기 햇반과 2인분 햇반은 맛별이 및 소가족의 증가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 패턴에 맞춰 양과 용기를 다양화 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두공기 햇반은 기존 둥근 햇반(210g) 반공기 분량인 130g짜리 햇반이 2개가 붙어 있어 필요할 때 마다 한 개씩 나누어 먹을 수 있다.

한 공기가 부담스러운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2인분 햇반은 한 개로 들어서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더욱 저렴하여 경제적인 것이 장점이다. 여럿이 함께 먹기에 편리하고 양에 따른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이 외에 찰진 밥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찰쌀밥도 함께 선보인다.

찰쌀이 20% 함유돼 있어 일반 맨밥보다 찰지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소화흡수가 잘되어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늘 속이 거북한 사람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이



업계동정

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겨울 별미 죽 제품인 단팥죽과 단호박죽 2가지가 출시됐다.

원재료의 씹히는 맛을 최대한 살려 집에서 쑨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

통팥의 씹히는 맛과 팥앙금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있는 햇반 단팥죽은 새알심 대신 고구마 큐빅이 들어 있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기존 호박죽의 단점이었던 신맛을 없애기 위해 단호박을 사용하여 달콤한 맛을 살려낸 햇반 단호박죽은 기존의 호박죽에 들어가 있는 늙은호박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단호박만을 사용했다.

햇반의 브랜드 매니저 박상면 팀장은 “햇반은 탄생 자체부터 소비자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 태어난 제품이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카테고리 및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한국의 밥맛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속의 햇반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삼양사

‘큐원 찰호떡믹스’ 출시

간편한 조리 가능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대표적인 겨울 먹거리인 호떡을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다.

삼양사(대표 김윤)는 최근 기존 오븐용 홈베이킹 제품들에 이어 후라이팬으로 만들 수 있는 ‘큐원 찰호떡믹스’를 출시했다.

‘큐원 찰호떡믹스’는 땅콩가루가 들어있는 고소한 맛의 호떡잼믹스와 이스트를 제품에 포함시켜 조리 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 없으며 타피오카 변성전분이 들어 있어 차지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홈베이킹을 즐기는 사람들과 방학을 맞은 자녀의 간식으로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큐원 찰호떡믹스’는 600g 규격 1개 제품으로 10개 이상의 호떡을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이며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므로 특히 위생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삼양사는 '큐원 찰호떡믹스' 출시로 기존 제품인 머핀믹스, 스펀지케익믹스, 초코쿠키믹스, 깨찰빵믹스 등과 함께 홈베이킹 프리믹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뎡

M-caffe' 출시

세련된 디자인 전용컵 및 뚜껑 포함

커피전문업체인 자뎡(대표 윤영노)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면서도 편의점이나 사무실 등에서 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게 깔끔한 진열대가 포함된 자뎡 'M-caffe' 시리즈를 출시했다.

M-caffe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신다'란 컨셉으로 9가지 맛(헤즐넛, 모카, 카푸치노, 모카카푸치노, 프렌치바닐라, 핫초코렛, 녹차라떼, 콜롬비아 유기농 원두커피백, 헤즐넛 원두커피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공간인테리어를 고려해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 편의점은 물론 사무실이나 PC방에서도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의 전용컵과 뚜껑이 포함돼 테이블 아웃 커피로도 손색이 없도록 만들었다.

회사 측은 "M-caffe는 일회용 커피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일회용 원집 시장과 자판기 시장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사무실 내 당비실이나 사람이 많이 찾는 장소, 편의점, PC방 등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 GS25 판매중이며, 자뎡 인터넷 쇼핑몰 www.tea24.co.kr 에서 기획상품(9종 3set + 진열대 무상제공)을 판매하고 있다.

자뎡은 89년 국내 최초의 커피전문점으로 시작해 현재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커피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업체이다.



세화무역상사

크리닝 오븐

탄화물이 남지 않고 탈취장치가 불필요

세화무역상사(대표 조대홍)가 미국 PCP(Pollution Control Products Company)사의 크리닝 화로(일명 크리닝 오븐)를 일본의 이토츠프라마크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맺고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세화상사가 공급하는 크리닝 오븐은 일본의 이토츠상사의 이토츠프라마크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 일본에서 시판된 지 불과 3년만에 2백대가 팔린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세화무역이 처음으로 대리점 계약을 맺고 시판에 나서는데 크리닝화로 전문업체인 미 PCP사 제품으로 전세계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제어 열분해형 크리닝 오븐은 금속부품으로부터 플라스틱 잔유물 제거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Breaker Plate, 다이, 필터 스크린 팩, 스크류, 방사구금, 폴리머 펌프 이외에 많은 금속부품을 정화할 수 있다.

SCTR 및 IGG형의 동작방식은 427~482℃의 열을 이용해 플라스틱 잔유물을 가연가스로 분해(열분해) 한다.



가연가스는 2차 연소실에서 완전 연소되어 탈취 및 제연된다. 이 온도는 금속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대부분의 폴리머를 소거하기에 충분하다. 플라스틱의 열분해로 생성된 열분해에 의한 가연가스는 오븐 최상부에 위치하는 2차 연소실로 들어간 후 2차 버너의 화염을 통과해 760~871℃의 온도에서 완전 연소되는 설계이다.

크리닝 오븐이 427~482℃의 처리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통상 과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며 소형 부품은 2~3시간의 전사이클 시간으로 정화할 수 있다. 자연상태의 유기물은 모두 소거 가능하며 상용 플라스틱 대부분 열분해에 의해 소거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염소, 불소, 취소 등의 할로젠을 함유한 유기 피복제나 플라스틱은 2차 버너에서 소거되지 않는 독성 및 부식성을 갖는 생성물을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이 오븐에는 화염 취조방식에 의한 전자식 화염안전제어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주 안전가스 차단밸브 및 고/저가스 압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동 처리하는 크리닝 오븐은 연기, 냄새가 나지 않고 탄화물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1차 버너에 의해 오븐 내부를 설정온도까지 충분히 상승시켜 복사열(피세정품 자체열)에 의해 피세정품에 부착한 수지를 가연가스로 분해한다.

피세정품에 부착한 수지가 천연 가연가스로 열분해되는 동안 오븐내의 온도는 상부의 분무기에 의해 제어하며 내부의 분위기를 저산소 상태로 보존한다.

열분해된 가연가스는 2차연소실에서 완전 연소되어 탈취, 제연되며 피세정품에 잔재하고 있는 탄화물(열분해된 수지)은 계속 산화하게 해서 CO₂와 H₂O로 배출한다.

PCP 크리닝 오븐의 안전기능은 가스버너의 전자식 화염안전 제어, 주 가스안전 차단밸브 및 고/저가스 압 스위치, 도어 스위치, 저수압 스위치, 독립 복식 분무시스템, 부분불활성, 저산소의 로분위기, 제어열분해시스템, 과열보호, 폭발완화, 분무노즐의 덩어리 경고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또한 분무 안전 냉각시스템, 문의 납경정, 전기식 도어록, 정전시 배터리 백업 기능이 있다.

세화무역은 지난 87년 창립 이래 섬유기계와 부품, Yarn Guide, Cutters, Spindle Tape 등을 공급해 왔다.

세화무역에서 취급하는 기계부품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 세계 여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데 특히 Murata Mach Corner7II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지난 2000년부터 미주지역으로 수출을 시작, 현재 매년 수량이 증가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일본의 Izumi사, Toray International사, Nitto Shoji사, Suzuki Warper사, Yamada사등 기업과 10년 이상 대리점 계약을 맺고 원단 및 막재료, Comb, 정경기, 가호기 등의 수입, 수출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일본의 이토츠프라마크와 크리닝 오븐의 대리점 계약을 맺음으로서 앞으로 플라스틱 분야에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